

서호인의 '소설처럼'



0%에서 시작하기 -서이제 소설 '0%를 향하여'

오늘날 광주극장은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에게는 미학적 감흥을 제공하는 독립영화에

리를 차지할 것이라고는 감히 쉽게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를 둘러싼 매체의 역사는 짧은 기간 이룬 영화의 두렵고 가파른 성과만큼의 곡절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곡절 안에 '시네필'이라 불리는 젊은 영화인과 영화

일용직도 마다하지 않고 영화를 찍기 위해 돈을 벌지만, 영화를 찍고 나면 다시 무일푼이다. 독립영화이지만 유명 배우가 출연해야 성공의 여지가 생기고, 이젠 그

나와 석우의 난처함은 영화를 하는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철만 되면 정해진

서이제의 소설에서 인물들은 젊고, 부자가 아니며, 안정과 성숙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서

서이제의 소설에는 서사의 윤곽이 흐릿하나, 교차하는 빛과 어둠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이 있다. 진실을

대학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오우삼 감독의 '미션 임파서블 2'를 광주극장에서 보았는데, 분명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상영하던 극장이 군대에 다녀오자 성격이

나름대로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통해 살길을 도모하던 다른 극장들과 달리, 자의든 타의든 그 모습을 그대로

의료칼럼

슬기로운 복약 방법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으면 위장 장애가 있거나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약은 꼭 식후 30분 이내에 먹어야 하나요? 약에 따라 다르다. 약에 따라 식전에 먹거나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산균과 항생제는 함께 복용하면 체내 유익균인 유산균도 사멸할 수 있어 항생제 복용

약도 다른 사람과 나눠 먹어도 되나요? 간편한 감기 약이나 두통약 등은 병원이나 약국을 가기 싫어 그냥

약에도 유효 기간이 있나요? 당연히 약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약은 유효 기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효능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약을 복용하는 데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 '약을

알약보다 가루약이 더 약효가 뛰어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약의 형태와 효능은 아무런 관계가

기고

전두환이 죽었다고?



김요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외협력총괄단 위원

이렇게 매국노와 독재자, 그들의 부역자와 후손들이 평평거리며 잘-사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립학교는

는 법이 있다. 역사 왜곡 방지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학살과 독재를 혐오하지만, 역사 왜곡 방지법은 없다.

전두환이 죽은 날, 이광영이 죽었다. 이광영은 장갑차를 앞세워 권력을 탐하던 전두환에 맞섰다. 그는 80년

이광영은 40년 남도록 '고통스럽다'고 말했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광영은 정

나라를 팔아먹은 놈, 독재를 했던 놈, 매국과 독재와 학살에 부역한 놈,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매국과 독재

1926년 매국의 아이콘 이완용이 죽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조약이다. 오직은 다섯 명인데 우리는 이완용만 알고,

이완용은 을사조약을 한 뒤로 일본 왕에게 작위와 상금을 받으면서 평평거리며 살았고, 그의 후손들도 평평거리며 산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社說

'국비 확보' 보다 체계적인 전략 필요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광주시가 국비 확보 과정에서

상은 다섯 곳 정도다. 한데 광주시가 한해에 세 곳의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요구'

국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의 지식산업센터 공모에 세 곳을 신청했다. 애초 남구 도시첨단국가산단에 광주에너

광주시는 난데없이 "AI융합지구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와 장애인기업 지식산업센터

이들 사례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 속에 의욕이 앞서면서 빚어진 일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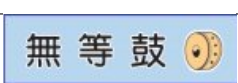
노후 아파트에도 소방차 주차 공간 확보해야

광주시 북구 770여 세대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A씨는 요즘 주차 전쟁으로 힘든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다. 노후 아파트 주차난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 출동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장애인 전용 주차

정부는 2018년 8월 이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다. 한 때 인기를 누리다가 지금은 사라져 버린 직업이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도 많다.

광주극장에서 상영 중인 다큐멘터리 '행복의 속도'에 나오는 '붓카'라는 직업은 내 삶의 속도를 생각해보게했다. 이한혁 감독이 제작한 영화의 배경은 '해발 1500미터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일본의 오제국립공원이다.

'전기수'와 '붓카'

오래 전 책에서 '전기수(傳奇妻)'라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궁금증이 일었다. 이승우의 단편소설 '전기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전기수? 그게 뭐야? 전기 기술자를 줄인 말인가?"라는 글귀처럼 난생 처음 들어본 단어가 흥미로웠다. '기이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늑은이'를 뜻하는 '전기수'는 조선시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리 밑이나 시장-거리에서 '심정전'이나 '속항전' 등 재미난 이야기책을 읽어주던 직업적인 이야기꾼이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24년차 붓카이카라시와 일본청년붓카대 대표이자 9년차 붓카인 이시타카는 매주 6일간 평균 70~80kg에 달하는 짐을 8~12km 떨어진 산장에 배달한다. 나무로 만든 지게 위에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게 짐을 쌓고, 팔짱을 낀채 앞만 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붓카의 모습에선 '자신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귀함을 만나게 된다. 꽃과 나무, 바람과 새, 습지의 식물 등 오제의 사계와 아름다운 기타연주가 어우러진 풍경은 영화가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